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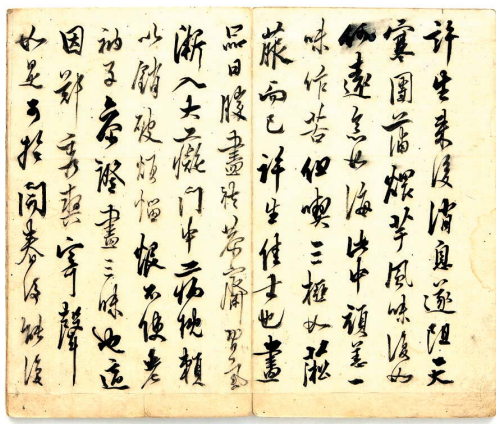
추사가 초의에게 보낸 편지

### 소치의 그림솜씨 감탄하며 상경 재촉

초의와 추사, 그리고 소치 허련(1808~1893)의 학연은 세상에 아름다운 인연으로 회자된다. 그가 대문사 한산전으로 초의를 찾아간 것은 1835년의 일이다. 초의는 그를 위해 방을 마련해 주었다. 소치는 이곳에서 초의에게 불화를 흡수 받는 한편 공재 윤두서 집안의 가장분을 빌려다가 임모하는 등, 지금까지 그가 경험하지 못했던 그림의 세계에 집중하였다.

1838년 초의는 금강산을 유람한 후, 돌아가는 길에 소치가 임모한 그림을 추사에게 보여 주었다. 한눈에 소치의 재주를 알아본 추사는 급히 초의에게 “허 소치의 그림 솜씨는 과연 기이한 재주입니다. 어찌 손을 잡고 오지 않으셨습니까. 보고 들은 것이 낙서(略西: 윤두서의 아들, 윤덕희의 호)의 일법에 불과하니 만약 한양에 와서 배우게 한다면 그 향상은 상상할 수 없을 것입니다. 남평의 군야(郡衙)에선 소식이 없습니까. (許畫果是奇才也 何不携來耶 所見聞不過略西一法 若使來遊京洛 其進不可量也 南平衙中 無聲信耶)”라는 편지를 보내 소치의 상경을 재촉한다. 이후 소치는 초의의 급한 전갈을 받고 서둘러 상경하여 장동의 추사 맥을 찾아갔는데, 이때가 1839년이라 알려졌다. 그러나 <주상운타첩>이 발굴로, 실제 소치가 추사 맥을 방문했던 시기는 1838년이었다는 사실이 새롭게 밝혀진 셈이다.

지금까지 <완당전집>(여초의)13신에도 소개된 편지에는 간지가 없었기 때문에 상경 시기를 정확히 고증할 수 없었던 것이다. 따라서 <주상운타첩>의 발굴은 소치가 추사 맥을 찾아간 것이 실제 세간에 알려진 것보다 일 년이 앞당겨진 셈이다. 추사가 1838년 12월에 보낸 편지는 다



<주상운타첩> 추사 친필본

### 초의·추사·소치...아름다운 학연 소치의 작품 향상에 삶의 희열 느껴

음과 같다.

허 소치가 온 후로 소식이 막혔습니다. 추운 겨울, 포단에 앉아 있는 품미는 여덟신지요. 멀리에서 (그대를 생각하는) 마음은 바다와 같이 깊습니다. 이런 중에 모질고 질긴 병은 그맛이 고통만 주니 인삼을 먹는다면 들 무를 먹는 것과 같을 뿐입니다. 허 소치는 훌륭한 사람입니다. 그림의 격조도 날로 나아져 공재(恭齋: 윤두서)의 습기도 다 떨어버리고, 점차 대치(大痴)의 문중으로 들어가는 듯합니다. 병든 나는 이에 힘입어 번뇌를 녹여 없애게 합니만 그대와 화삼매(畫三昧)를 참증(參證)하지 못하는 것이 한스럽습니다. 마침 정수

석의 편에 편지를 보내니 새 봄 이후 다시 병발(瓶鉢)을 챙기어 지난 날, 충분하지 못했던 인연을 잇는 것이 어떨지요. 이만 무술(1838) 12월

(許生來後 消息遂阻 天寒團蒲 咄咄風味 復如何 遠念如海 此中頑恙 一味作苦 但喫三 如崑崙而已 許生佳生也 畫品日勝 盡祛恭齋習氣 漸入大痴門 中 病枕賴以銷破 煩惱 恨不使老衲 參證畫三昧也 適因鄭秀爽寄書 如何可於開春後 能復理瓶鉢 以續過境末了之緣耶 不次 戊戌臘日)

당시 추사는 부친 김노경의 상중(喪中)에 있었고, 그의 병도 깊었던 듯하다. 하지만 추사는 소치가 날로 공재의 습기를 떨어 버리고, 대치의 문중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면서 삶의 희열을 느꼈던 듯.

한편 추사가 언급한 대치는 누구인가. 대치는 월말 4대가로 꼽히는 인물, 황공망(1269~1354)이다. 월말 산수화의 대가였던 황공망은 송대 문인화풍을 발전시켰던 인물로, 추사가 흠모했던 소동파의 문인화풍을 영향 받았다. 추사가 허련의 호를 소치라 지었던 것은 대치와 짝한 인물이 허련이었음을 드러낸 것이라 짐작된다. 따라서 추사는 초의와 함께 소치의 향상을 담론하며, 축하하고 싶었던 것.

바로 그가 “그대와 화삼매(畫三昧)를 참증(參證)하지 못하는 것이 한스러우니, 새 봄 이후 다시 병발(瓶鉢)을 챙기어 지난 날, 충분하지 못했던 인연을 잇는 것이 어떨지요”라 한 것은 초의와 함께 화삼매를 논하며 기쁨은 나누고자 했던 것이라. 박동춘(동아시아 차문화연구소장)



박동춘(동아시아 차문화연구소장)

# 맨손으로 전법 발원 “나의 아메리칸 드림”

이종권 ('미주한국불교' 편집장)

승산 스님이 미국으로 진출해 한국불교 세계화의 씨앗을 뿌린지 30여 년이 지났다. 불교계에서도 ‘한국불교의 세계화’를 화두로 한국의 수행·학술·사찰을 식·불교문화 등을 전세계에 알리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과 미국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티베트, 일본, 중국 및 남방불교와 비교할 때 아직까지 한국불교는 걸음마 수준이라는 평을 받고 있다.

특히 미국을 비롯한 북미 지역에는 조계종, 태고종, 진각종, 보문종 등 많은 한국 사찰이 정착해 활동하며 이민 생활에 지친 많은 불자들의 기도처이자 수행처로 큰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해외라는 척박한 여건과 소수계 이민자를 위한 종교시설이라는 한계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듯 한국불교 세계화에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음에도 묵묵히 불교를 알리는 사람이 있다. 바로 미주한국불교 편집장인 이종권(47)씨다.

그는 뉴욕 맨해튼 도시 한가운데서 염주를 팔고 미국 대학캠퍼스에서 부처님 티셔츠도 판다. 그런가하면 미국전역을 직접 자가용으로 운전하며 미국 내 모든 사찰을 방문해 스님들과 면담하고 자료를 축적해 <2012 미주한국불교 총람>과 <불교인업소록>을 제작, 무료 배포하는 등 불법의 황무지인 미주지역에서 현지인들에게 법음을 전파하고 있다.

서 29%는 친지, 9%는 미디어를 통해서였다. 흥미로운 것은 이들 중 35%가 불교적 수행을 하면서도 가톨릭과 미국교회 예배에 참석한다고 말한 것이다.

“미국에서는 외래종교라고 할 수 있는 불교가 현지화하기는 과정을 ‘Americanization’, 즉 미국화라고 한다면 한국불교를 배경으로 하는 관음스쿨이라는 미국불교의 한 종파가 미국화하기는 과정에서 보여준 가능성과 한계를 밝혀내었습니다.”

### 미대륙을 불교정도로

이 편집장이 파악한 미국은 거대한 빈 종이였다. 인종, 성별, 지역, 계층, 종교, 성적 취향, 출신지 등에 따라 다양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미국이라는 땅명에서 경합하고 투쟁하며 살아가는 그런 곳이었다. 그는 미국을 ‘공(空)’의 나라로 새롭게 정의했다.

“다양한 사람들이 각자의 이익을 위해 거대한 빈 종이를 자신들의 입맛에 맞도록 색칠하려고 노력하고 있으니 그 종이의 색깔은 끊임없이 변화할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제가 공부했던 미국학 프로그램에서 가장 강조하는 가르침은 ‘고정불변의 미국은 없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면, 미국은 기독교 국가다, 미국은 백인의 국가다 등 미국을 둘러싼 온갖 규정들은 허구라는 사실을 배우며 이러한 편견과 고정관념을 극복하고 미국에 대한 정견을 세워나가는 공부를 합니다. 그러한 관점에서 미국을 새롭게 정의하면 미국은 공(空)인 것입니다.”

이 편집장은 이런 관점을 나름대로 학문적으로 체득하고, 미국에 살고 있는 한국인 불자이자 포교사로서 텅 비어 있는 미국을 어떻게 하면 부처님의 뜻에 어울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채워나갈 수 있는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 대학 졸업 후 불교에 심취

### 美켄스대서 미국학·불교 접목

### 그가 본 미국 “빈 종이 썩의 나라”

### 미대륙 불교정도 만들기로 발심

### ‘미주한국불교’ 및 총람 발행

### “미국 내 한국불교 정체성 살릴 것”

그렇게 해서 ‘미대륙을 불교정도로!’ 라는 서원을 세운 그는 미국에서 불교와 관련된 일이라면 굶은일 힘든 일이든 마다않고 상황에 따라 다양한 일들을 했다.

먼저, 켄스대 석사과정 논문을 마치자 뉴욕사원연합회에서 제안을 들어왔다. <뉴욕불교>라는 잡지사의 편집장으로 일해 달라는 제의였다. 학창시절 외대명자 신문동아리 ‘아거스(The Argus)’ 편집장을 맡기도 했던 그는 불교를 일생의 업으로 추구하고자 결심했던 터라 흔쾌히 응했다.

“불교의 불모지라 할 수 있는 미국에서 맨손으로 불국토를 개척하겠다고 생각하니 막막하기도 했지만 이천년 한국불교사에 못 깊은 기회가 저에게 주어졌다고 생각하니 이것이야말로 내가 추구할 아메리칸 드림이라고 생각하게 됐습니다.”

이종권 편집장은 이후 청소년 불자들의 자원봉사단 ‘Lotus Helpers’를 조직해 약 4년간 활동했다. 또한 미주한국불교의 네트워크를 구축하기 위한 인터넷 카페를 운영하다가 조계종 총무원에서 해외사찰현황조사 의 현지조사원으로 발탁돼 미국과 캐나다 전역을 자동차로 다니며 해외사찰 기본데이터를 수집해 보고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미주 불교인들의 수행과 공부에 필요한 각종 불서와 용품을 공급하는 한편, 총무원장 스님 미국순방, 교계 기자단 미국방문, 해외포교사 미주 불교 탐방, 템플스테이 운영요원 해외연수 등 본국 불교계의 미주 방문시 현지 지원인력으로서 도움이 되고자 했다.

그렇게 상황에 따라 이 편집장이 할 수 있는 작업들을 하나씩 실행하던 중이었다. 2011년, 미주불교신문

### 영문학도, 불교와 미국 접목하다

이종권 편집장은 한국외국어대 영어과와 대학원을 졸업한 영문학도다. 1990년대 초반, 인사동 주변을 맨들다가 전봇대에 붙은 전단지(가)가 그의 눈에 들어왔다. ‘조계사 불교대학 3개월 기초교리 과정’이었다.

“불교가 무엇인지 궁금했던 터라 가벼운 마음으로 들어갔는데 강의가 들을수록 점점 진지하고 심각해졌어요. 제가 방황하며 찾아왔던 진리가 부처님한테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기초교리 과정을 마친 후 수계도 받고 1996년 조계사 불교대학 2년 과정을 마쳤어요.”

불교의 매력에 빠진 이 편집장은 내친김에 수선회에서 참선도 배우고 1998년에는 일반포교사와 국제포교사 자격을 품수 받았다.

영미문학을 전공했던 그는 불교에 대한 갈증을 어느 정도 해소하자, 이번에는 영어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바탕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다. 그래서 영미문화권에 사는 사람들의 문화와 역사를 배우기 위해 미국 켄스대 대학으로 유학을 떠났다.

당시로서는 생소했던 미국학(American Studies) 프로그램에 지원하게 됐고, ‘미국은 어떤 나라인가?’ ‘해방이후 우리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쳤던 미국을 어떻게 바라보고 대응할 것인가?’ 대한 의문이 그의 화두가 됐다.

켄스대 주립대에 들어간 이종권 편집장은 대학생들과 미국인들이 불교에 대해 호감이 있다는 것을 느꼈다. 하지만 그저 단순한 호감일 뿐 이 이상에 대해 자세히 아는 사람은 없었다.

“갓 품수 받은 국제포교사로서 왕성한 포교정신으로 룸메이트들에게 법을 전했지요. 운이 좋게도 학교에서 가까운 곳에 승산 스님의 제자들이 세운 켄스대 선원(Kansas Zen Center)라는 곳이 있어서 독일인 룸메이트와 일요일마다 법회에 참석했어요.”

켄스대 선원은 한국식이라고는 했지만 미국인들이 주로 운영해 한국의 전통한국식과는 달랐다.

이때부터 이 편집장은 ‘불교의 미국화’라는 이슈에 천착하게 됐고, 4년간 미국 불교단체들을 끈질기게 찾아다니며 ‘로렌스 켄스대의 불교단체를 통해 본 불교의 미국화’를 주제로 논문을 완성했다. 미국 학계에서는 1800년대부터 불교관련 논문이 생겼지만 미국 학의 관점에서 불교를 주제로 작성한 학위논문은 그의 논문이 처음이었다.

논문에 따르면 미국인 불자들은 정치적으로 진보성향을 가진 민주당 지지자가 압도적으로 많았고, 인종적으로는 백인, 교육수준은 61%가 석사학위 이상 소지자, 91%가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인 불자의 61%는 개신교 가정에서 자랐고 24%는 가톨릭, 6%는 유대교, 3%는 불교와 이슬람, 무종교의 환경이었고 불교를 처음 접한 경로는 38%가 책에

**제2회 만다라배 불교축구대회**

2013년 10월 19일 (토)  
미사리 조정경기장 보조축구장

주최 한국불교종단협의회  
주관 불교총지중 FC붓다  
후원 불교서적총판(주)운주사, 현대불교신문사, 불교신문사, 금강신문, 연동산업, 아제여행사, 불광출판사, (주)다나, 미안마문화원, 마하연투어, 청룡기획, 한국불교기자협회, 봉은사, 대한불교진각종

문의 불교총지중 02-508-8933 010-6661-3593  
FC붓다 010-7339-8688



2009년 해외사찰 현황조사 후 뉴욕 Radio Korea 방송출연.



2013년 템플스테이 운영요원 미주연수 중 (Quaker Study Center Pendle Hill에서)



이종권 편집장은... 한국의국어대학교 영어과·동대학원 영어과를 졸업(문학석사)하고, 조계종 불교대학을 졸업했다. 1998년 미국으로 가 캔사스 대학(The University of Kansas) 대학원에서 미국학(American Studies)을 전공으로 졸업했다. 캔사스 대학에서 한국어 강사를 역임했고, 뉴욕불교 편집장, Lotus Lantern 편집위원, 뉴욕원각사 사무국장, Lotus Helpers 단장, 조계종 촉탁사원(해외사찰 현황조사 현지조사원) 등으로 활동했으며, 현재 미주불교신문 편집국장으로서 있다. 저서로는 해외포교의 이론과 실제 I (2008)/ 해외포교의 이론과 실제 II (2010), 선법일기(Diary of a Korean Zen Monk) 영문판 번역, 미주한국불교 총람 & 불교인 업소록 등이 있으며, 조계종 포교대상원력상을 수상(2010)했다. 사진=박재환 기자 wanihollo@hyunbul.co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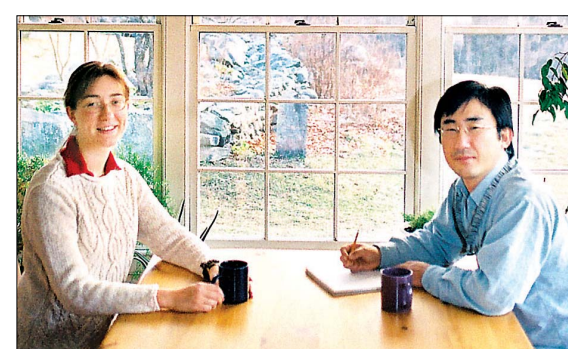
이사장인 워싱턴 보림사 주지 경암 스님이 미주불교신문 편집장의 소임을 맡아달라고 제의한 것. 그 인연으로 이종권 편집장은 <2012 미주한국불교 총람 & 불교인 업소록>을 발행했고 이 책을 기초로 미주한국불교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인터넷 미주불교신문(www.koreanbuddhism.us)을 복간하는 데 성공했다. <2012 미주한국불교 총람 & 불교인 업소록>은 약 160 페이지 분량으로 미국 동부 및 서부, 중서부, 태평양 지역 사찰 주소 및 전화번호, 정기법회 및 연중사찰행사, 한글학교 등 다양한 정보를 담았다. 뿐만 아니라 미주지역 불자들 간의 소통의 폭을 넓히고 이민 생활을 도와주기 위해 불자들이 운영하는 사업체들도 소개했다. "총람 제작은 2011년 조계종 해외포교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발행됐습니다. 부처님 법으로는 이 우주만물이 모두 연결돼 있다고 생각하는데 실제로 우리 불교인들은 대부분 서로 어디에 있는지도 모른 채 고립돼 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 같은 고립감을 외로움과 무기력증으로 발전해 불교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불교인들이 서로 알고 상부상조하며 살아가는 세상이 불국정토가 아닐까 하는 생각으로 발행해 1만부를 무료배포 했습니다." <2012 미주한국불교 총람 & 불교인 업소록> 발행으로 어느 정도 네트워크를 구축한 그는 2014년도에는 <세계한국불교 총람>이라는 책자를 기획해 작업 중에 있다. 또한 책자와 별도로 불교인들의 비즈니스 총람을 스마트폰 앱으로 개발해 일상의 모든 생활을 불교인들 간에 꾸려나갈 수 있는 포맷을 구상하고 있다.

그가 본 미국 내 한국불교 10여 년을 미국에서 생활한 그는 "미국의 한국불교는 개척불교"라고 정의했다. 눈보라치는 벌판에서 손수 텐트를 치고 밥까지 차려 먹어가며 일궈내야만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불교라는 것이다. "미주 한국불교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은 이제 널리 알려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지금껏 미주 한국불교를 일구어온 주역들이 게으르거나 무능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압도적으로 험난하고 이질적인 환경 속에서 지금껏 버티고 일구어 온 것으로도 큰 성과입니다. 미주한국불교는 세계로 뻗어가는 한국불교의 베이스캠프입니다. 우리에게 적어도 그 베이스캠프가 마련되어 있다는 사실을 자축해야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의 성취를 향후 불교발전을 위해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하는 점입니다. 때문에 미주한국불교는 본국 불교계의 축소판입니다. 본국 불교의 강점도 약점도 미주한국불교의 모습 속에 고스란히 반영되



2006년 뉴욕 불자 청소년 자원봉사단 Lotus Helpers와 함께 벽화 그리기 봉사하는 모습.

어 있습니다. 미주한국불교는 본국 불교의 거울인 것입니다. 미주한국불교를 이런 관점에서 지켜보시고 성원해 주시는 것이 궁극적으로 본국불교의 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봅니다." 이종권 편집장은 "한국불교의 세계화"라는 가치를 내걸고 다양한 활동을 시도하는 국내 한국불교에 조언도 아끼지 않았다. "우선 '불교의 세계화'와 '한국불교의 세계화'는 두 개의 완전히 다른 차원의 이슈라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근본적으로 자비의 실천이라는 측면에서 둘은 공통점이 있지만 특별히 '한국불교'의 세계화라는 명제는 불교를 매개로 다양한 불교전통간의 정치적 문화적 경쟁이라는 맥락이 추가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국불교의 세계화를 논할 때 반드시 명확히 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바로 한국불교 세계화의 목적 및 효율성입니다. 지금까지는 많은 경우 한국불교의 세계화를 맹목적으로 그리고 효율적인 방식으로 실행해 왔던 것은 아닌지 성찰해야 합니다." 그는 세계 속 한국불교의 정체성을 확립시키기 위해 '달마붐 아메리카(Dharma Boom of America, Inc.)'라는 법인을 2008년 설립했다. 우수한 한국의 불교문화상품은 해외로 내보내고, 외국인 및 해외불자들은 한국으로 들어와 본토 한국불교의 기운을 받아갈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 것. "불교문화의 발전이 뒤쳐진 미국의 입장에서 한국은 불교문화의 선진국입니다. 미사일도 핵탄도도 잘 만드는 미국이지만 제대로 된 염주도 불상도, 탱화도 제작하지 못하는 것이 또한 미국이기도 합니다. 발전된 우리의 불교문화를 자비의 정신으로 그들과 공유하는 일은 부처님의 뜻에도 맞는 일입니다. 저는 이와 같은 작업을 할 수 있는 법적 요건을 갖추기 위해 2008년 불교비즈니스 전문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유구한 한국의 불교문화를 세계에 보급할 수 있는 유일한 현 지법입니다. 이 통로를 통해 발전된 한국의 불교문화가 널리 보급되기를 바랍니다." 이종권 편집장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을 꾸준히 할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 유일한 계획이자 소망이다. 그는 포교사로서, 불교 활동가로서 불교가 발전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비법이 있다고 말했다. "부처님을 믿고 따르는 모든 불자들이 더 좋은 불자, 그리고 성공적인 사회인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불교인의 성공이 바로 불교의 발전이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앞으로도, 그와 같은 맥락에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꾸준한 정진하고자 하는 것이 저의 소박한 계획입니다." 이나는 기자 oasis1983@hyunbul.com



<침바지를 입은 붓다>의 저자 수미 런던(Sumi London)과의 대담 중(2003).

### 전법일기

#### 일곱 살 꼬마의 코 묻은 공양금

일곱 살 병주는 어린이 영어담마스쿨을 다니는 아이다.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서 만난 사이로 언젠가 강화도 연등국제선원으로 템플스테이를 가는 홍보 글을 보고 참가신청을 한 것이 인연이 되었다.

이 가족은 아주 경제하고 발달했다. 병주 역시 비로자나국제선원 영어담마스쿨에 다니면서 영어를 배우기 시작했다. 영어담마스쿨은 1, 2부로 나누는데 1부인 1시 30분부터 1시간동안 7세부터 10세까지 공부하고 2부는 10시부터 14시까지 공부하는데, 순서에 따라 어린이 집회기와 삼귀의를 한 후 참선을 하고 각자의 영어수준에 따라 수업을 한다. 또한 수업을 마치고 나면 다시 모여 사홍서원과 산회가로 끝낸다. 그러니까 병주는 ABC부터 이쪽 영어담마스쿨에서 배우기 시작했다고 말할 수 있다. 6개월 정도 다닌 병주가 어느 날 나에게 와서 살짝 자랑을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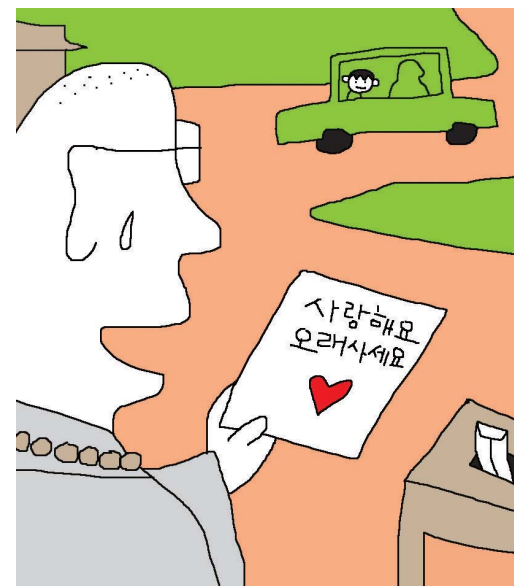
"스님! 저 돈이 아주 많아요" "그래? 좋겠네. 그럼 스님도 좀 주라."

"그래요. 그럼 백만 원 되는날 제가 반 드릴게요", "정말? 그래 좋아." 그렇게 우리는 약속을 했지만 나는 그것을 믿지 않았다. 아이가 그냥 하는 말이라니 생각했는데 어느 토요일 오후 나를 큰소리로 부르며 달려 오더니

"스님 저 모은 돈 정말 백만 원 되었어요. 저 초등학교 입학한다고 할머니랑 외할머니랑 돈을 많이 주셨거든요. 제가 반 드린다고 약속했으니까 드릴게요."

"그래? 굉장한데. 그런데 너희 엄마, 아빠가 스님에게 그만큼 보시한다고 하면 안 좋아하실텐

## 선뜻 건넨 한 어린이의 보시 '감동'



그림·박구원

데.. 어찌지? 부모님께 한번 여쭙봐."

나는 다시 설마 했다. 아이가 그냥 하는 말이라니. 그리고 부모가 그것을 허락할 리가 없다고 생각했다. 다음주 다시 아이는 환한 얼굴로 달려와 내 품에 안겼다.

"스님! 기뻐하세요! 엄마, 아빠가 약속은 꼭 지켜야 하는 거라고 스님께 드려도 된대요."

감동적이다. 그리고 얼마가 지났다. 외부의 방문초청으로 선원을 비운 날 아이와 아이의 엄마가 다녀갔다.

메시지로 "스님 저희 다녀 갑니다. 병주가 불전함에 보시금 넣었어요. 열여보세요. 스님을 뵈 수 있었으면 더 좋았을텐데요." 나는 미안한 마음으로 불전함을 열었다. 두둑한 봉투에 서툰 글씨로 '스님께' 라고 정겹게 써 있다. 설마 일곱살 아이

가 오십만원쯤을 진짜 보시했을까? 봉투를 연 나는 너무도 놀랐다. 그리고 이제 겨우 초등학교 1학년이 된 아이의 뽀뽀뽀뽀한 글씨의 한 장의 편지에 가슴이 먹먹해 졌다.

"스님, 사랑해요, 오래오래 사세요. 병주가" 겨우 한글을 떼 아이에게 받은 오십만원의 불전. 순간 눈물이 핑 돌았다. 감사하고 고맙고 기특했다. 병주 엄마도 "스님, 병주가 스님이 기뻐하실 생각만 해도 너무 너무 행복하다고 했어요"라고 전했다.

당시는 도심포교당을 연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때라 살림이 넉넉하지 않았고 신도들 중에도 그렇게 많은 보시금을 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 "일곱살 꼬마의 코 묻은 공양금"이 감동적이면서도 미안한 것은 왜일까? 나는 아직도 그 돈을 쓰지 못하고 있다. 훗날 비로자나국제선원 어린이 법당을 지을 때 꼭 그 아이의 이름으로 올리고 싶다. 가끔 어린이 포교를 하다가 지칠 때가 있다. 이제 그 만큼할까? 하다가도 밝은 함박웃음으로 나를 돕고 자 하는 작은 꼬마들의 마음이 내 가슴을 울려서 새로운 힘을 내곤 한다.

전 재산의 반을 보시한 큰 마음의 아이. 이제는 어느덧 키가 나보다 더 커버렸다. 여전히 지금도 절에 오면 먼저 내 품에 안긴다. 그런데 예전에는 내가 안았는데 요즘은 아이가 나를 안아 준다는 느낌이 든다. 앞으로 포교하시는 스님의 어려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많아지면 좋겠다.



자우 스님(비로자나국제선원 선원장)

Advertisement for the 2013 Odaesan Cultural Festival. It features a background of autumn leaves and mountains. The text includes: '10th 생명·명상·치유 2013 오대산 문화축전', '탄허대중사 탄신 100주년 기념 합창제', '2013年10月12日 土 오후6시', '오대산 월정사 도량 특설무대', '출연: 대한불교조계종 한마음선원 어린이 합창단, 청년회 합창단, 선법 혼성 합창단', '초대가수: 인순이, 김태우(god)', and a list of sponsors including the Korean Buddhist Association and various media outlets.